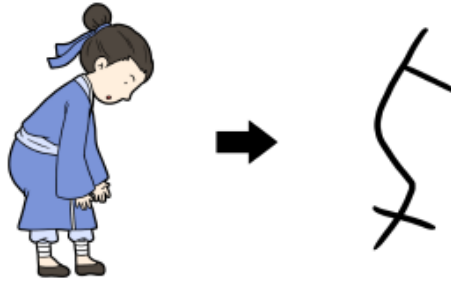


3(2)  
-  
411

지사문자①



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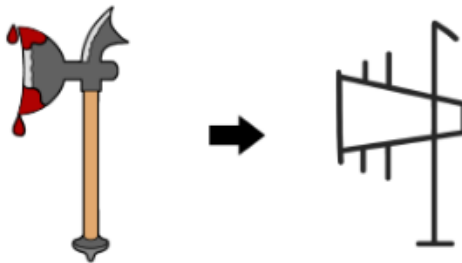
자 척

尺자는 '자'나 '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尺자의 갑골문을 보면 사람의 다리에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이것은 발만큼의 길이를 표현한 것이다. 길이를 잴 자가 없을 때는 무엇으로 길이를 측정하려고 할까? 아마도 조그만 것은 손의 너비만큼 길이를 잴 것이고 좀 긴 거리는 보폭으로 길이를 측정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寸(마디 촌)자는 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 끝에서 가운데 있는 손가락까지의 3cm 정도의 길이를 뜻하고 尺이라고 하는 것은 발의 길이 만큼인 23~30cm 정도를 뜻한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12

회의문자①



戚

친척 척

戚자는 '친척'이나 '겨레', '분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戚자는 戠(창 무)자와 采(아저씨 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采자는 콩 줄기에서 콩이 떨어진 모습을 그린 것으로 '콩'이나 '아저씨'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戚자의 갑골문을 보면 도끼를 뜻하는 戠자 주위로 핏방울이 뿜어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를 해쳤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戚자의 본래 의미는 '분개하다'였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도끼날에 묻은 핏방울이 采자로 대체되면서 '친척'이나 '겨레'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시기에 采자가 '아저씨'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戚자의 의미도 바뀌게 된 것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13

회의문자①



拓

넓힐 척

拓자는 '넓히다'나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拓자는 手(손 수)자와 石(돌 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石자는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拓자에서 말하는 '넓히다'라는 것은 토지를 확장한다는 뜻이다. 먼 옛날 농사를 지을 땅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했을까? 처음부터 농사 짓기 좋은 땅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척박한 땅에 뒥굴 던 돌을 옮기는 방식으로 농지를 만들었다. 그러니 手자에 石자가 결합한 拓자는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손으로 돌을 옮긴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拓자에 아직도 '좁다'라는 뜻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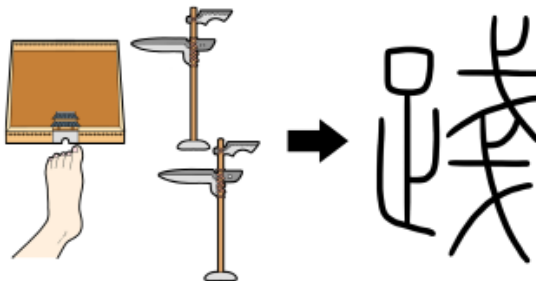
소전

拓

해서

3(2)  
-  
414

회의문자①



踐

밟을 천:

踐자는 '밟다'나 '(발로)디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踐자는 足(발 족)자와 蹠(해칠 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蹠자는 창을 두 개 겹쳐 그린 것으로 '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창을 그린 蹠자에 足자가 더해진 踐자는 창을 들고 성(城)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踐자에서 말하는 '밟다'라는 것은 상대를 정벌해서 짓밟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踐자에 '실행하다'나 '실천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은 상대를 정벌하여 정의를 실행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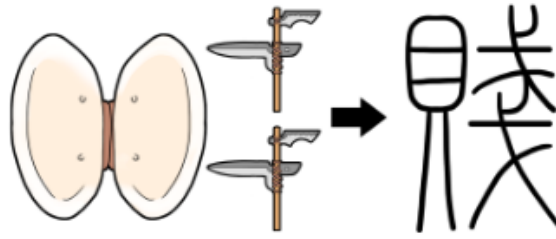
소전

踐

해서

3(2)  
-  
415

회의문자 ①



賤

천할 천:

賤자는 '천하다'나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賤자는 貝(조개 패)자와 戔(쌓일 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戔자는 여러 개의 창을 쌓아 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쌓이다'나 '잔인하다', '적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賤자는 이렇게 '적다'라는 뜻을 가진 戔자에 貝자를 결합한 것으로 '돈이 적다'나 '값이 싸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사람에 비유하여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천하다'나 '경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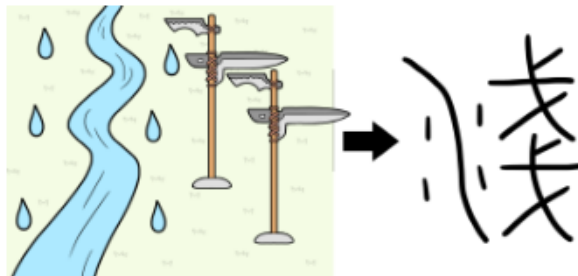
소전

賤

해서

3(2)  
-  
416

회의문자 ①



淺

얕을 천:

淺자는 '얕다'나 '얕다',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淺자는 水(물 수)자와 戔(해칠 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戔자는 창을 뜻하는 戈(창 과)자를 포개놓은 모습이지만 여기에서는 '잔→천'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淺자는 본래 물의 깊이가 얕음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숙하다'나 '부족하다'와 같이 기술이나 지식의 깊이가 '얕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편이다.

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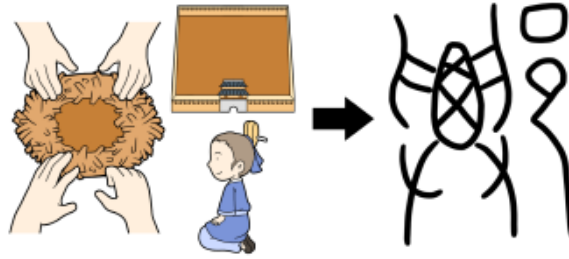
소전

淺

해서

회의문자①

3(2)  
-  
417



遷

옮길 천:

遷자는 '옮기다'나 '떠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遷자는 辵(쉬엄쉬엄 갈 착)자와 千(옮길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千자는 본래 '옮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遷자 이전에 쓰였던 글자였다. 千자의 금문을 보면 𠂔(고을 읍)자 옆에 새집을 옮기는 모습이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터전을 옮긴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는 千자가 '옮기다'나 '떠나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소전에서는 여기에 辵자가 더해지면서 길을 떠나 옮긴다는 뜻을 더하게 되었다.

𠂔

금문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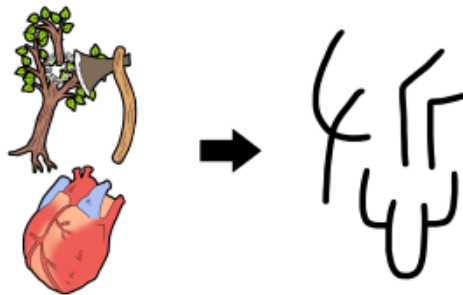
소전

遷

해서

형성문자①

3(2)  
-  
418



哲

밝을 철:

哲자는 '밝다'나 '슬기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哲자는 折(꺾을 절)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折자는 도끼로 나무를 동강 낸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절→철'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哲자는 '현명하다'나 '사리에 밝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금문에서는 口자가 아닌 心(마음 심)자가 𠂔 그려져 있었다. 고대인들은 감정이나 생각은 머리가 아닌 심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문에서는 心자가 '사리에 밝다'라는 뜻을 표현했었지만, 후에 口자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를 유추하기 어렵게 되었다.

𠂔

금문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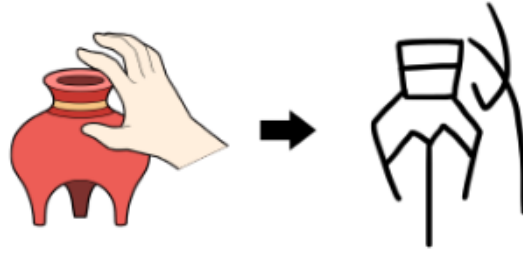
소전

哲

해서

3(2)  
-  
419

형성문자①



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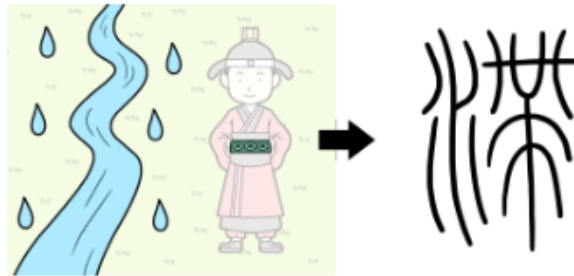
통할 철

徹자는 '통하다'나 '관통하다', '꿰뚫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徹자는 彳(조금 걸을 척)자와 育(기를 육)자, 夊(칠 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徹자는 鬲(술 력)자에 又(또 우)자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鬲자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 도구를 그린 것이다. 여기에 又자가 결합한 것은 식사를 마치고 식기 도구를 치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徹자의 본래 의미는 '거두다'나 '치우다'였다. 금문에서는 鬲자 아래로 火(불 화)자가 더해지기도 했지만 소전에서는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로 바뀌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3(2)  
-  
420

회의문자①



滯

막힐 체

滯자는 '막히다', '쌓이다', '정체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滯자는 水(물 수)와 帶(띠 대)자의 결합한 모습이다. 帶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허리띠를 그린 것으로 '띠'나 '띠를 두르다'라는 뜻이 있다. 滯자는 이렇게 묶어두는 역할을 했던 帶자를 응용해 "물(水)을 묶어두다(帶)"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즉 허리띠로 조르듯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이다.

소전	해서